

안녕! 스탠리야. 나는  
망월초등학교 2학년 이혜은  
이라고해. 난 납작이가 된 스탠리  
책을 엄마랑 같이 흥미롭게  
읽었어. 너는 납작이가 되었을때  
무섭지 않았니? 네가 납작이가 되어  
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. 네가  
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 
너무 두려웠어. 그런데 너는 무서워  
하지 않고 납작한 몸을 즐기는 거  
같아서 난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.  
연이없는 동생을 위해 연이되어 하  
늘을 날았을때 기분이 어땠니? 그후에  
아서가 너를두고 그냥가서 많이 속상  
했지? 나도 너처럼 동생이 있는데  
동생때문에 화가나기도해. 그래도  
우리가 언니, 오빠니까 그냥 봐 주자.  
그래도 아서 덕분에 네가 다시  
돌아왔잖아. 동생도 가끔 쓸모가 있어!  
그런데 왜 나는 너처럼 재미있는  
일이 안일어날까? 네가 도둑잡아  
유명해지게 조금 부러웠어. 넌 다  
룬 책에서는 투명 인간이 되어  
TV쇼에도 나가잖아. 나도 너처럼  
재미있는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.